

## 일본인이 19세기 우리의 민요를 기록한 《한어유취》

하버드대 연칭도서관의 고서들 — 6

허경진 | 연세대 국문과 교수

19세기 말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이 당시에 주워들은 한국어를 그대로 기록한 한국어 자료집이 《한어유취》다. 1894년 봄에 입국한 하시모토 쇼요시란 인물은 주로 전라도 사투리와 민요, 판소리를 듣고 기록했다. 그가 기록한 민요들은 19세기 이전부터 불렸는데, 지금까지는 1920년 전후에 채록된 가사들만 소개됐다. 따라서 19세기 이전에 불렸던 가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입증된다.

《한어유취(韓語類聚)》는 19세기 말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당시에 주워들은 한국어를 그대로 기록한 한국어 자료집이다. 표지에 “경자지월염일(庚子至月念日)”이란 기록이 덧붙여 있어, 1900년 11월 20일에 필사를 마친 책임을 알 수 있다.

### 조선에 진출하려는 일본인들이 우리말 배워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아주 오래됐다. 그들은 외교적, 또는 상업적인 동기에서 한국어를 공부했는데, 특히 조선과 가까운 쓰시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했다. 조선에서 통신사가 오면 주로 쓰시마에서 통역을 구했다.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가 쓰시마에 들어와 장사꾼 아이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면서 체계적인 교육이 시작됐는데, 그 과정에서 편찬된 교과서가 《교린수지(交隣須知)》다. 이 책은 글자 그대로 “이웃 나라와 친하게 사귀려면 반드시 그 나라말부터 배워야 한다”는 뜻에서 만들었다.

이 책은 1703년부터 1870년대까지 170년 간 조선어를 배우려는 일본인들에게 널리 사용됐다. 그러다가 1876년에 강화도조약이 체결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외교가 성립되자, 외무성에서 공식적으로 조선어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조선어 교과서도 공식적으로 편찬하게 됐다.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 제5조에 밝힌 것처럼 “부산 이외의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목적에서 조선어를 배울 필요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때 《교린수지》가 다시 간행됐는데, 처음 간행한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났으므로 역시 쓰시마 출신의 외무성 조선어학교수였던 우라 요리히로(浦瀨裕)가 교정·증보하고 1880년 5월에 서문을 붙여 1881년에 4책으로 다시 간행했다. 그때부터 수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에 진

출하기 위해 이 책으로 조선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1894년 청일전쟁 전후에 일본 군대가 조선에 진출하자, 군사적인 목적 때문에 조선어를 배우는 사람도 많아졌다. 군대가 움직일 때는 반드시 조선어 통역들이 따라다녔다. 정치가나 사업가들도 조선을 여행한 뒤에 기행문을 간행했고, 조선의 여러 지방을 소개하는 지리지(地理誌)들이 이 무렵에 많이 간행됐다.

### 민요나 속담, 대화들을 듣는 대로 기록해

하시모토 쇼요시(橋本彰美)도 1883년에 간행된 《교린수지》 재간본 4책으로 몇 년 동안 조선어를 공부했으므로, 당대 조선인들이 사용하던 상말과 속담, 또는 민요와 판소리까지도 받아 쓸 수 있게 됐다. 1894년 봄에 입국한 그는 전라도 나주에 머물렀으므로, 주로 전라도 사투리와 민요, 판소리를 듣고 기록했다. 그가 기록한 민요들은 19세기 이전부터 불렸는데, 지금까지는 1920년 전후에 채록된 가사들만 소개됐다. 따라서 19세기 이전에 불렸던 가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입증된다.

이 책의 편차는 다음과 같은데, 대표적인 구절만 소개한다.

▲ 천자문 : 天 하늘턴, 地 싸디, 玄 가물현, 黃 누르황...

▲ 제의(祭儀) · 절사(節祀) · 천신(薦新) · 제찬(祭饌)

▲ 천광지구(穿曠之具) · 발인지구(發引之具)

▲ 육자박이(六字拍이) : (1) 죽었다니 죽었다니 남원골 춘향이 죽었다니. / 성문 삼취 맛고 옥사장이 춘향을 업고, / 상단은 말머리 들고 춘향업시는 미음그릇 들고 / 더듬더듬 나오던니 옥담을 부어잡고 / 옥중의 이만하고 안즈시니, / 엇든 친구 벗넘이 날 아니 추즈오는구나

(2) 저건네 동박나무 밧티 낭즈 큰인기 두리 나선니 / 눈을 주즈하니 제 물고 손을 치자흔니 인간이 알며 / 밧친 놈으로 알거

구나. / 죽었든 혼백 너시라도 만나를 볼건나

(3) 저건네 물방이집의 / 보리방이 즐겨던 즐겨던 치는 저 큰  
아가. / 성이석 호소장 잔비접저구리 / 지름씨 쌀금 누든 니 사  
랑아. / 죽었든 혼백이라도 한번 만나를 볼구나.

▲ 중거리

▲ 기타(민요) : (1) 시야시야 프랑시야 만수문전이 豊年시야. /  
너 무어 다라 나왔느냐. 白雪 풀풀 산닝기 모도 다 죽건네. / 송송  
입도 퍼러퍼러 夏節이라 나왔드니. / 저건네 청수 속유자지가 날  
속연네 (東軍노리)

(2) 기야기야 곱경기야 물 만 밥을 너를 줄 제 / 비가 불러 너를  
죽었나. 먹기 실어 너를 죽었나. / 우리 니미 오실 격에 짓지 말나  
고 너를 죽었지.

(3) 썩 싸라가자 썩 싸라가자 / 뒷동산의 횡나무 그늘 속  
이 썩 싸라가자 / 썩도 싸고 입도 보고 겸스 겸스 가즈 (밧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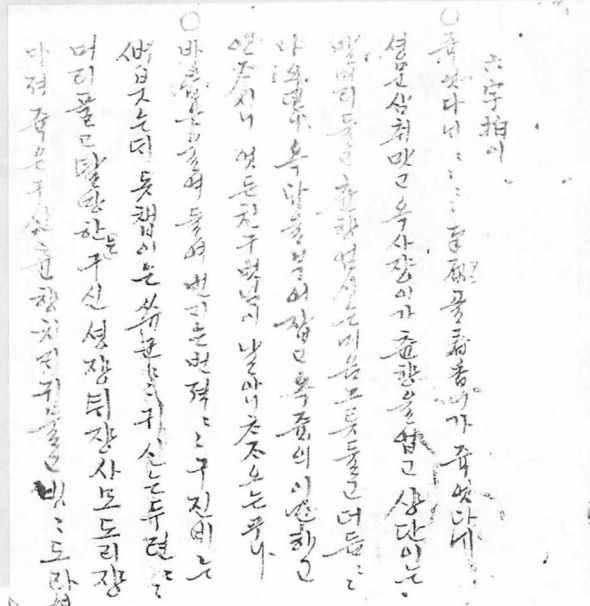
(4) 알굿더라 알굿더라 우리 洞內 혼큰이기 / 저녁밥을 일죽 먹  
고 꽃오가리 풀(팔)이 걸고 / 玉東우를 엮피 싸고 大門 박계  
씩 나셔니 / 이리 가므서 썩웃썩웃 저리 가므서 썩웃썩웃 / 만나쿠  
야 만나쿠야 情든 입을 만났구야. / 회여든다 회여든다 삼밭기로  
회여든다. / 굴근 삼디 썰어지고, 자근 삼디 망을 보고, / 치미 버서  
치월 치고, 허리씩 버서 병풍 싸고, / 저구리 버서 베키 삼고, 단솟  
것 버서 요를 짜라, / 속것 버서 이불을 삼고, / 우리 두리 이러다가  
아기를 비으면 어얼헛게. / 그거실낭 곡정마라, 이 내 춤치이 약 드  
렀다. / 그藥 먹어 안 듯거든 뒤통산이 능슈버들 / 우쥬우쥬 홀더  
싸가, 푹푹 썩려서 / 혼보이만 마시면 무쇠라도 계가 절노 녹아난다

(5) 씨질 년아 발길 년아. 디동통편이 목 벨 년아. / 病 든 家長  
누여 늦코 어린 子息 줌 드러 늦코, / 시벽달밤 찬바람이 밤뭇다리  
싸는구나.

전라도 지방에서 불린 동학군 민요도 실려

하시모토 쇼요시는 전라도 나주에 몇 년 동안 살았기에, 전라도 사  
투리에 이미 익숙해 있었다. 판소리나 육자베기를 제대로 알아듣  
고 기록했을 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부르는 타령이나 민요도 곧  
잘 기록했다. (5)번 민요는 1920년대에 채록됐지만, 이 책에서 처음  
확인된 민요도 많다. (4)번 민요 같은 경우는 줄거리가 있는 민요  
인데, 정든 남을 만나서 열정적으로 정사를 치른 뒤에 낙태까지도  
계획할 정도로 치밀한 애정행각을 보여준다.

이 책이 전라도 나주에서 기록됐기에, 당시 전라도 지방에서 널  
리 불려졌던 동학군 민요가 많이 실려 있다. (1)번 민요가 바로 동  
학군, 특히 전봉준을 노래한 <파랑새>인데, 지금까지 널리 전하는  
민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  
면, 녹두장수 울고 간다”는 노래와는 사뭇 다르다. 아직 동학혁명  
이 성공할 시기가 아니건만 농민군을 규합해 혁명의 기치를 치켜  
세웠던 전봉준을 동정하는 노래 가사를 보면, 시기상조를 아쉬워



하시모토 쇼요시가 19세기 말 전라도에서 채록한 육자박이.

했던 전라도 주민들의 마음이 나타난다.

동학군에 관한 노래는 이밖에도 많다.

▲ 湖南 羅州 守護軍은 東學軍을 자부라고 / 산지 四方에 보발  
노왔네. / 초토영인 아라보니 行軍허라는 습적이 난니!(이하 줄임)

▲ 亂離가 난니 亂離가 난니! / 古阜 뒤통산이 亂離가 난니. / 先  
鋒大將은 全捧準이 中軍大將軍은 金계남이(이하 줄임)

전라도 주민들 사이에도 동학혁명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달랐던  
듯하다.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이 일본인이었기에, 동학군을 바라보  
는 그의 눈이 긍정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그는 자기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 민요를 수집한 듯하다. 필자는 이 책에 실린 19세기 말  
의 민요와 판소리, 속담과 전라도 사투리 등을 앞으로 1년 동안 연  
구할 계획이다. 이 연구가 끝나면 이 책의 가치가 더 드러나리라고  
생각한다. ●